

추 모 사

정전 6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전쟁 당시 삼천리 금수강산을 수호하기 위해 장렬하게 산화한 국군 장병 및 UN 참전용사들의 삼가 명복을 빌며 극락왕생을 발원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우리국군 13만 7천 여 명의 값진 희생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머나먼 타국 땅에서 UN군 194만 명이 참전하여 4만 여명의 젊은 영혼들이 이 산하에서 목숨을 초개처럼 바쳤습니다.

막 피기 시작한 꽃다운 청춘들, 한 가정의 아빠요 삼촌들이 일가친척이며 사랑하는 가족들을 남기고 돌아올 수 없는 먼 길로 떠나갔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만나 본적도 없는 UN군들이 머나먼 이국땅 이 강산에 뜨거운 피를 흘렸습니다. 그것은 평화 수호를 위한 거룩하고 장엄한 몸짓이고 울림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국군을 비롯한 UN군 전몰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없었을 것이며 대한민국의 번영 또한 약속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평화 수호영령들의 가호가 없다면 우리조국의 비약적인 발전 또한 이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오늘 이 UN 기념공원에서 향기로운 도량을 장엄하여 한반도 평화수호 영령님들의 고귀한 영혼을 위로하고 그 가없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삼가 감사와 공경, 용서와 화해, 원용과 화합의 예를 올리는 것입니다.

오늘 위령 수륙재에 초청 받으신 모든 영령들이시여!

이제 모든 원한과 갈등, 원망과 분노, 애착과 번뇌를 놓아버리시고 부처님 법문 들으며 적정하고 평화롭기 바랍니다.

그동안 대한불교조계종은 정전 60주년을 맞이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인류평화를 위한 많은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불자들과 국민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평화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은 경계와 편견의 장벽의 허물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깊은 강이 되어 온 산하를 평화롭게 흘러야 합니다. 중도 화합의 정신으로 대립을 지양하고 차이를 인정하며 화쟁과 원융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영령들이시여!

우리들의 이러한 소망 또한 잘 들어주시고 이 땅에 평화가 속히 정착 되도록 가호하여 주십시오.

평화의 수호자들이시여!

저희들의 법다운 공양 받으시고

상적광토에서 열반락 누리며 안락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2557년 9월 2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